익산시 적극행정 빛났다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 15년 숙원 민원 실타래 풀어

익산시가 시민 입장을 우선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원 민원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적극행정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시는 사용검사(통상적 아파트 준공)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무려 15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 민원의 실타래를 풀어낸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A건설에서 지난 2002년 사업승인을 거쳐 팔봉동 313번지 일원에 49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4년 B건업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후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 사업주체가 파산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당초 승인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매입 및 무상귀속을 위한 도로부지 토지매입이 필요했으나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입주자들은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거주해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대표 간 도로 매입 문제로 분쟁과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시는 단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도로부지인 3필지, 1,495㎡ 매입을 결정했다.

24일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이전으로 사전승인 조건이 모두 완료되면 15년 만에 아파트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시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대폭 확대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근속요건은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소득요건도 기존 월 평균 급여 270만원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311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현재 900여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500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시청을 직접 방문 또는 익산시 기업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청년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시는 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월 30만원씩 최대 3년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만큼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 청년정책 전국 '최고'… 벤치마킹 메카 부상

전남도의원·곡성군청 관계자·연합청년회 등 40여명 청년시청 방문 잇따라

익산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벤치마킹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에 대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어 청년정책 선진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진호건 전남도의원과 곡성군청 인구정책과장, 곡성군 연합청년회장 등 40여명은 청년시청을 방문해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고 시의 우수한 청년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개청한 청년시청은 총 4층 규모로 청년들의 궁금증 해소와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한 청년민원실과 북카페, 청년 교육 '프로그램실', 대관전용 '커뮤니티실', 창업지원공간인 '스마트스튜디오', '창업보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소통창구와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취업부터 창업,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어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앞서 서천군과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청년시청을 다녀간 바 있다.

곡성군청 관계자는 "익산청년시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청년의 니즈에 따라 시설이 구색에 맞게 잘 갖춰져 있다"며 "청년들의 소통창구와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청년시청과 다양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각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방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위기가구 주민과 함께 찾는다'

이중선 익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웃의 신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익산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는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관내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기 이웃을 발굴·신고하여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연간 상한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가 국제 대회와 각종 행사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는 지난 23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대식 부시장과 최종오 시의장, 김태정 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지회장, 전북 시군 외식업지부장, 지역 외식 업체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3천여 회원사들은 익산문화재야행과 전북이태마스터대회, 세계잼버리대회 등 앞으로 개최될 국내·외 대규모 행사에서 청결한 음식점 환경 조성, 깨끗한 주방 문화와 친절한 서비스로 익산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결의를 다졌다.

총회에 앞서 익산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회원사에 표창이 수여되기도 했다. 장선화 대야식당 대표, 김순동 북경 대표, 유동현 진양반갈비 대표가 익산시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총 13명의 업소 대표들이 중앙회장, 전북지회장, 익산지부장 표창을 받았다.

황호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장은 "익산방문의 해와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개최를 기회 삼아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익산의 맛과 멋을 제대로 알리고 업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회원사들이 도내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자 집합교육 유치와 로컬푸드 애용 운동 등에 앞장서 준 덕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군산시가 외국어 통역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4일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 관내기업·민간단체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국제교류 무대에서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통역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위촉된 제5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군산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통역봉사자들의 통역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통역봉사자로서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및 국제교류와 통역에 관한 특강, 문화관광해설사 동행으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호남관세박물관 등 주요 근대 역사문화시설을 탐방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다소 주춤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적 국제교류가 다시 활성화되어 군산시 통역봉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24일 영광중 일대에서 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아웃리치에 나섰다.

아웃리치(OUT-REACH)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구호?상담 등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으로 이번 캠페인 및 아웃리치는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문화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성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을 호소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교육 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 9~24세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 모집

군산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신고(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4개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다만, 영업지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이며, 시설개선 총 사업비 1,000만원 중 업소당 700만원을 지원하며, 300만원의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